

#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해외선진지견학 결과보고서

인적사항	성 명	김소희	학 번	201819227
활동내용				
전공 관련 여행 중 인상깊었던 점과 느낀 점				
<p>이번에 주어진 해외선진지견학 지원금의 기회 덕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 어렸을 때 중국에 잠깐 살았었던 기억은 있지만 혼자 준비하고 다녀오는 여행은 처음이라서 조금 더 새롭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준비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가까운 나라 베트남에 도착해서 가깝지만 우리나라와 정말 다른 환경을 만나 보게 되었다. 건물모양, 옷차림, 음식, 교통수단 하나하나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람들의 문화 외에도 날씨 등 우리와는 조금 다른 자연환경에도 조금은 놀랐다.</p>				
				
				
<p>우리나라의 시장이나 마트 등 비슷한 것도 많았고 다른 점은 더더욱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게 느껴졌다. 가장 큰 차이는 화폐의 단위인데 베트남 20000동은 한국돈 약 1000원으로 단위가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였다. 계산에 조금 혼란이 오기도 했었다. 첫날에는 다낭에 갔었는데 다낭의 대표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관광객들이 꼭 오는 '한시장'으로 갔다. 이 곳 시장역시 우리나라 시장과 큰 차이가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이 훨씬 넓고 깨끗했으며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평범한 시장과 다르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흥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일층엔 주로 식품위주가 거래되고 있었지만 청결이 조금은 아쉬워 냄새가 심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였다. 과일이나 야채 해산물 등 정말 평범한 시장이었다. 이층은 주로 의류 등을 파는데 여기서 가장 큰</p>				

거래가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그곳에서 쌀국수나 간단한 식사를 하시면서 장사를 하는 모습이었다.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다낭에 롯데슈퍼 롯데리아 등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식품가게도 있었다. 롯데슈퍼에 가기 앞서 그냥 동네 작은 슈퍼도 한번 둘러서 구경을 해봤다. 생각보다 한국제품,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외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가격은 한국과 아주 비슷했다. 이 나라의 식품에 비해 약 1.5~2배 이상 높은 가격인 것 같다. 아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 제품을 사먹는 정도의 가격으로 예측된다. 또한 베트남 몇 가지의 간식거리들은 양이 매우 적었다. 과자 뿐만 아니라 라면, 음료수 와 같은 제품도 우리나라에선 판매용이 아닌 주로 업소용으로 나오는 양의 제품을 당연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소량이기 때문에 1인가구가 증가하며 가족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딱 맞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가서 롯데슈퍼에 갔다. 시장경제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형마트가 소매 시장을 위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이 곳 역시 대형마트의 식품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저렴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큰 대형마트의 수가 적고 위치도 시내에서 조금은 떨어져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큰 문제는 아직 없어 보이지만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들었다.



#### 여행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달라진 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소감으로는 비록 매우 가까운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조금은 넓어지고 조금은 다른 사고방식이 생긴 것 같다.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는 해외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들었지만 생각보다 친절하신 사람들, 그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씩 소통하면서 100전부 통하진 않았겠지만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행가기전 “여자 들이 베트남? 조심해..” 하며 염려하던 말들과 고정관념이 역시 직접오니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 넓은 곳으로 가보고 싶다는 소망과 도전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소중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갑자기 생길지 모를 기회에 항상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뜻깊은 여행이 되었다.